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9년 05월 15일 발행(224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05 ISSUE
근용안경 등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이에 반대하는 안경사들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06 NEWS IN NEWS
최근 행정자치부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對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안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08 INSIDE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이 이번 의기법 일부 개정안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저렴함과 하이퀄리티 모두 가졌다!

아오아

www.aoa.co.kr

미미상사 02.333.1123



글라스 스토리 · 렌즈 스토리

가/맹/모/집

OX QUIZ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로 등록 완료되어
관계법상 권리 보호받는 상표는 (주)안경매니져에**만** 있다.



HINT 상표 출원신청만으로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안경원에서는 상표권 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다.

ANSWER. 정답은 ○ 입니다.

1억 정부지원 창업 대출 자금 프로그램 연계

※안경 및 콘택트 브랜드에 한함

가맹 안내 · 문의 가맹상담 및 상권분석

총 괄	서 울	인천 · 강원도 · 경기도	대전 · 충청도	대구 · 부산 · 울산 · 경상도	광주 · 전라도
이 재 형 본부장	서 영 태 팀 장	이 준 영 팀 장	노 장 호 팀 장	이 동 기 팀 장	문 기 영 팀 장
010-9670-6666	010-9374-1739	010-9424-5438	010-9976-5058	010-2951-5485	010-7557-8208

케미 안경 렌즈



MAGIC FORM XT

Premium Customizing Design

경험해보지 못한 누진 시야를 제공드립니다.



특별한 나만의
레이저 마킹 서비스



정말한 누진설계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완벽한 개인맞춤

www.chemilens.co.kr

PENTAX

100 SINCE 1919

안경사 & 소비자 대상

펜탁스 가정의 달 행사

펜탁스 응모하고 건강 마스크 챙기세요!



이벤트 1 **QR코드로 응모하세요! 응모하신 분들에게 LG건조기, 쿠쿠 공기청정기 등 추첨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응모 대상 : 누구나 응모(QR코드로 응모하신 선착순 4,000명에게 건강 마스크 모바일 쿠폰 제공 / 1인 1매–중복 불가)
- 응모 기간 : 2019년 5월 31일까지
- 응모 방법 : QR코드를 찍어 응모해주세요.
- 경품 안내 : 쿠쿠 공기청정기 5대(5명), LG건조기 1대(1명), 펜탁스 안경렌즈 모바일 교환권 50장(50명)
  (공기청정기, 건조기 당첨자 대상 제세공과금 부담)
- 당첨자 발표 : 2019년 6월 17일 – 휴대폰 문자 개별 안내

이벤트 2 **펜탁스 프리폼 안경렌즈를 구입한 고객 중 QR코드로 펜탁스 품질보증카드 사진을 찍어 응모하신 고객분께 추첨하여 커플 싱가포르 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

- 응모 대상 : 펜탁스 프리폼 구매한 고객 (소비자 대상)
- 응모 기간 : 2019년 5월 31일까지
- 응모 방법 : 펜탁스 프리폼 렌즈를 구입하신 고객은 품질보증카드 뒷면 사진을 QR코드로 전송해주세요.
- 경품 안내 : 커플 싱가포르 여행권 2매(1명,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 200만원), 신세계 1만원권 상품권 100장(100명)
  (여행권 당첨자 대상 제세공과금 부담)
- 당첨자 발표 : 2019년 6월 17일 – 휴대폰 문자 개별 안내

*해당 이벤트 관련 문의 : 경품대행사 (주)플랜에스 1833–4643

* 유의사항 : 5만원 이상의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경품가의 22%)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 건강마스크 기프티콘, 펜탁스렌즈교환권은 1인1매입니다. – 중복응모불가하며, 양도,양수 불가합니다. – 기프티콘의 경우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품 종류 등 택배사정에 따라 배송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대리점

서울 (주)일도옵티칼 02 448 7117 | 영신광학㈜ 02 853 8427 | (주)월드포커스 02 771 4282 | (주)일도광학 02 975 0633
경기 경기대명광학㈜ 031 391 5980 | 중부대명광학 031 283 1636 | 다가스광학(일산대명) 031 907 4265 | 대명렌즈광학(인천대명) 032 438 6800 | 경기일도광학 031 841 1416
경상 ㈜대명렌즈옵티칼(대구대명) 053 354 7779 | (주)동경옵티칼 051 894 3737 | 동협상사 051 412 2765 | (주)시원광학 051 758 2332 | 다가스동협(울산동협) 052 260 4593
충청 ㈜대명옵티칼(천안대명) 041 558 2202 | 대명렌즈(청주대명) 043 264 7887 | (주)한국렌즈(대전) 042 256 6256
전라 한국렌즈(전주한국) 063 236 0208 | 대명렌즈㈜(광주대명) 062 653 8998
강원 대명옵틱스(강원대리점) 033 735 1520
제주 동경제주지점 064 752 2648

PENTAX 충북 청주시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20, 043–240–4000

www.pentaxoptical.com

© 2019 PENTAX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9년 05월 15일 발행(224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Marvis
마비스렌즈 런칭 기념 콜라보
●전품목 일정 금액 구매시 무료설치
●아이원3D 누진측정기 630만원
아이미광학 T.02.774.4477 H.P.010-9662-6898

안경사 구인구직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EL 053.353.9992
FAX 053.351.4063
모바일 APP 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도코리아'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서 무료로 안경사 구인구직을 이용하세요!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www.nadokorea.co.kr

국민 눈(眼) 무시한 개정안, 반대의견 쇄도

근용안경 등 온라인 허용 개정안에 일반 국민까지 반대의견… 20만 안경가족들 근용안경 온라인화 '결사 반대' 한목소리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안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의 안경사들이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은 국민의 안 보건과 안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복지부는 '양안의 도수가 동일한 +3.0디옵터 이하의 근용안경과 수경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TV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고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4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는 5월 중순인 현재까지 총 4,401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이중 찬성은 단 1건이고 나머지는 반대와 기타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안경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올린 수도권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의료기기로 명시된 품목을 누구나 취급하고 판매한다면 전문가가 왜 필요할까요? 전문가를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또 일반 소비자로 보이는 한 참여자는 '며칠 전 안경원에서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1시간이 넘도록 시력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도록 법을 바꾼다니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입니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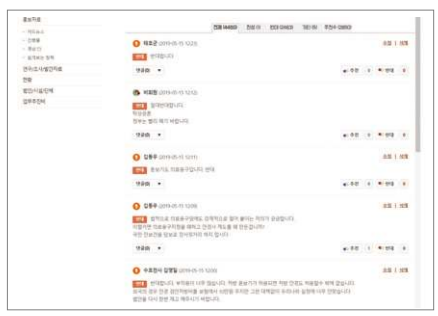
서울 용산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안 보건을 위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월한 안경사제도를 제정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안경류를 온라인에서 구입해도 좋다고 법률로 정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근용안경을 온라인에서 구입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안 보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지난달 29일 대한안경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개정안 관련 긴급이사회 모습.

안경 전문성 무시한 개정안 반대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폐기 유리
입법예고 후 반대집회 개최 예정


▲ 1989년 9월 28일 서울 목동에 소재한 88체육관에서 개최된 안경사법반대궐기대회의 모습.


▲ 이번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몰려 있는 보건복지부의 전자공청회란.

협회, 댓글 독려부터 단계별 대응책 마련

이번 의기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6월 4일 입법예고가 마감되면 이후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면 정부가 '국민들 반대가 심하니 이건 통과가 어렵겠다'고 판단해 법안폐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경우는 일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 폐기 시 책임 소재 등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대안협은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안 폐기가 목표인 대안협은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안경사법을 제정할 때인 지난 1989년 9월 전국의 안경사 1만 명이 참가한 안경사법반대결의대회에 버금가는 대규모의 반대집회도 고려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의 반대가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안 보건의 훼손을 막기 위한 투쟁임을 알리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대안협 중앙회의 민훈홍 홍보부회장은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내세운 명분은 국민 불편 해소와 고용창출인데,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경원은 줄폐업, 안경광학과는 줄폐과 되어 오히려 고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안경가족과 전체 안경 관계자 모두 반대의견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별 취재반

tip. 개정안의 절차

▶정부 발의 개정안
(근용안경 온라인 일부개정안은 정부 발의)
법령안 입안 → 부패영향평가 → 관계기관 간 협의 → 당정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 → 국회 제출 → 국회 심의 • 의결 → 공포안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상정 → 공포

▶의원 발의 개정안
국회의원 10인 혹은 위원회의 법률안 제안 → 법률안을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심사 →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심의 • 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tip. 의기법 개정안 반대의견 개진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반대 클릭과 의견 작성
→ 로그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https://opinion.lawmaking.go.kr/mob/ogLmPp/list
→ 입법예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의견 작성
→ 로그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톡톡톡

■ "근래 안경원을 방문한 고객 분들께 돋보기 온라인 판매 개정안에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데 흔쾌히 허락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해야 최소한의 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안경사는 물론 가족까지 댓글 올리기에 모두 참여바랍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안경원 원장)

청와대서 개정안 반대 1위 시위

인천 박종달 행정부회장, 대형 피켓 들고 시위… 근용안경 온라인화 반대 투쟁



▲ 지난 8일 박종달 행정부회장(우측)의 1인 시위 현장을 격려차 찾은 대한안경사회 김종석 협회장.

인천시안경사회(회장 이주신)의 박종달 행정부회장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부회장은 '국민의 눈 건강이 우선입니다' '근용안경 인터넷 판매는 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안경사 생존권 위협하는 근용안경 인터넷 판매방침 철회하라' 등이 적힌 대형 판넬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용안경 등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이 국민들의 눈 건강에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오는 악법임을 알리기 위해 1위 시위에 나섰다"며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6월 4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었으나 복지부 개정안 저지를 위해 치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안협 중앙회의 요청으로 일단 10일까지만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그동안 본인의 시위에 동참해준 인천시안경사회 진승언 사업부회장과 노수영 홍보부회장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10-2675-8781

행안부, 불난 집에 부채질

근용안경 입법예고 중에 콘택트 온라인화 소비자 설문조사로 안경사들 반발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초에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필요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7%(140명)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7%(74명)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 현재 온라인에서 성업 중인 한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사이트의 메인 화면.

이에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로 근심에 휩싸인 일선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연이어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구나 도수 근용안경과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기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이 같은 발표에 나서는 것에 불쾌해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혀 추진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기기 수입품 1위는 '원데이 C/L'

작년 전체 수입 중 소프트콘택트렌즈 21.0%로 1위 차지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중 수입액 1위 품목이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2018년 10대 수입품목의 수입액은 총 8,981억 원으로 전체의 21.0%를 차지했는데, 1위는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1,688억 원)였고, 2위는 관상동맥용 스텐트(1,124억 원), 3위는 MRI 촬영장치(1,02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위 품목 중 수입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안교정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인공수정체(568억 원)로 이는 백내장 수술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가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의 성장 때문인데, 국내 업계는 지속적인 수입 증가가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와 시장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콘택트렌즈 유통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외국계 글로벌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가까운데, 작년에 수입산 원데이 콘택트렌즈의 수입이 더 늘었다는 것은 4대 외국계 업체의 시장 잠식이 더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 생산업체들의 전체 매출을 모두 합해도 외국계 업체 한 곳의 매출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다양한 수입산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

한편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6조 5,111억 원으로 2017년(5조 8,232억 원)보다 11.8% 증가해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9.0% 포인트 성장했다. 또한 2018년 의료기기 수출은 3조 9,723억 원으로 2017년(3조 5,782억 원)에 비해 11% 증가했으며, 수입은 4조 2,791억 원으로 전년 3조 9,529억 원 대비 8.3% 증가해 무역적자는 3,06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문의 1577-1255

수입실적 상위 10위 품목 현황(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입금액	비중
1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120,309	3.4
2	관상동맥용스텐드	95,501	2.7
3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	85,461	2.4
4	면역화학검사시약	66,966	1.9
5	인공무릎관절	65,022	1.9
6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63,609	1.8
7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55,376	1.6
8	안경렌즈	49,970	1.4
9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	40,036	1.1
10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35,859	1.0

'안약으로 시력을 개선한다?'

이스라엘 연구진, 나노 물질이 안구의 부족한 부분 채우며 시력 개선 주장… 일부선 부정적 견해



지난 4월말 이스라엘의 일간 영자신문 「THE JERUSALEM POST」가 안경렌즈 없이 시력을 개선해주는 안약이 개발됐다고 보도했다. 안약의 이름은 NanoDrops로 텔아비브 샤아르 제덱 메디컬센터의 안과관련 연구팀이 개발했다.

연구팀의 다비드 스마자 박사는 "나노드롭스는 원시와 근시를 개선해 가깝거나 먼 물체를 모두 잘 볼 수 있고, 특히 다중초점렌즈까지 대체할 수 있는 안약이다"며 "지난해 돼지에게 임상실험을 진행한 결과 원시와 난시의 구분 없이 시력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시력을 개선시킨다는 이 안약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눈의 굴절을 측정하면 각막 모양에 맞는 레이저 패턴이 생성되고, 이때 나노드롭스를 눈에 넣으면 나노 물질이 안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시력이 개선되는 원리다. 현재 연구진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가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시력이 개선되기 위해 이 안약을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등 아직까지는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상용화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DESIGN BY
GERMANY

더욱 더 편안한 개인별 완전 맞춤형

프리폼 양면 비구면 렌즈

본격 출시

독일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하다

OPTOS

GERMANY TECHNOLOGY



- 독일 GF공법으로 더욱 넓고 편안한 시야
- 개인별 완전맞춤형 렌즈 : 개인별 생체학적 특성과 착용습관까지 고려한 제작
- 안구의 회선 각도에 따른 설계 및 특수 최적화 설계 적용
- 슈퍼하드 멀티코팅으로 업그레이드된 내구성
- 무게와 두께감 40% 이상 감소(기존 자사 일반렌즈 대비 약 40%)
- 싱글비젼, 누진다초점렌즈, 기능성렌즈(변색렌즈 가능)

Technical joint with GERMANY

OPTOS LENS

“개정안 막는데는 안경사의 반대 댓글이 중요”

김종석 협회장, 근용안경•수경의 온라인 판매 반대하는 댓글 참여 당부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대한안경사협회가 발로 뛰고 있다. 안경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이 규제개혁 품목에 포함된 지 4년여 만에 느닷없이 ‘온라인 판매한다’는 개정법률(안)이 공고된 후 하루하루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현재 협회 집행부는 안경사는 물론 그 가족까지 20만 이상의 반대 댓글을 올리도록 독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각계 요로를 찾아다니며 의료기기인 돋보기가 ‘손톱 밑의 가시’가 절대 아님을 설득하고 있다.

본지는 복지부의 의기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종석 협회장의 각오와 대응방안을 들었다.


▲ 대한안경사회 김종석 협회장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에 안경사 반발이 매우 큽니다. 입법화되면 면허증도 반납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협회장: 안경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당연합니다. 만약 근용안경이 온라인 판매되면 안경사에게는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에게 죽으라는 법안입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애쓰고 규제개혁에 관심이 많지만, 문제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근용안경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안경사 모법에도 안경류는 ‘전자상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온라인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부는 콘택트렌즈까지 다 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콘택트렌즈 업체,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으로 풀릴 것으로 낙관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협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정부가 ‘콘택트와 돋보기의 온라인이 세계적인 추세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유통’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안경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많죠.

김 협회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악법 개정안입니다. 안경사제도가 엄연히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도수 있는 근용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면 안경사 자격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안경사들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 시력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책임도 없는 온라인 업자들에게 안경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 안경사는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안경사 면허증을 반납할 각오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또 회원들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용안경 다음 순서는 콘택트렌즈라는 말들도 나옵니다.

김 협회장: 우리 집행부도 이 점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콘택트렌즈를 지켰으니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대한 제방도 보이지 않은 작은 균열에서 무너집니다. 이번에 근용안경과 수경이 입법예고 됐지만, 정부쪽은 시종일관 빠지면 다 빠지고,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경사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데 정부가 외국 사례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 협회장: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사례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마다 구조가 다르고 특색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들 나라는 안경사제도가 없습니다. 근용안경이나 수경은 준의료행위가 가미돼야 제구실을 하는 의료기기인데 정부는 이를 액세서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볼록렌즈인 근용안경은 광학적 이론이 더 많이 투영해야 되는 의료기기입니다. 볼록렌즈는 오목렌즈에 비해 왜곡현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초점이 매우 정밀하게 일치돼야 합니다. 붕어빵 찍어내듯 싸구려로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의료기기가 바로 근용안경입니다.

협회장, 각계에 개정안 부당성 강조

▶개정안의 입법 차단이 가능하겠습니까.

김 협회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죠. 협회는 근용안경, 도수 수경의 온라인화를 막기 위한 매뉴얼을 단계별로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이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의 입법예고된 지 12일째인데 댓글이 2천 5백여 개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실망이 큽니다. 예전에 모 의료단체는 자신들의 업권이 축소되는 입법예고가 나왔을 때 4만 건 이상의 반대의견을 제시해 결국 이를 저지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들이 댓글에 무관심하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의 댓글 참여로는 협회장이 각계 요로에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안경사의 생업을 지키는 일에 전체 안경사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협회는 반대 댓글이 10만, 20만 건이 되도록 만들 각오입니다.

▶안경사의 반대의견 댓글이 그만큼 중요하군요.

김 협회장: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협회는 입법예고 즉시 회원 2만여 명에게 협회장 명의로 반대의견을 올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이미 수차례 보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조직을 이용해 각 분회장들이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전화하며 사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174명의 분회장님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참여입니다. 회원 누구도 빠짐없이 반대의견 댓글을 당부드립니다.

▶대처 방안이 강력하고 다양한가요.

김 협회장: 협회는 심지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위해 페이스북에 관련 동영상까지 만들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보건복지분과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안 보건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거기까지 진행된다면 전국 규모의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래 협회장이 국회에 상주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 협회장: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시도지부의 임원들도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수차례 만나서 이번 개정안의 법안 폐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안경사 면허증 반납 각오

▶업계 일각에서 돋보기는 내주고 조제료나 검안료를 받아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 협회장: 지금은 그 어떤 협상도 용인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안 보건을 지키기 위해 안경사제도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이율배반적인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안경의 조제료, 또 병원처럼 보험수가를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온라인과 보험수가는 완전 별개입니다. 현재 의료체계로 볼 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들려주시죠.

김 협회장: 협회의 책임자로서 회원 분들께 걱정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는 이 개정안이 절대 입법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현재 협회는 안경원에 부착하는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아, 이래서 돋보기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면 안 되는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제20대 집행부는 외부와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 안경사 법정보수교육 때는 전국 16개 시도의 보수교육장 30여 곳을 찾아다니며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30여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의 회원을 만나며 가장 큰 보람은 일반 회원들과 협회장 사이의 간극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사진촬영을 부탁하는 등 협회와 회원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엔 약 1만여 직업군이 존재하는데, 전문직에서 가업 승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이 안경사입니다. 내 자식, 내 후배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생업에 큰 지장이 없다고 미래를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협회는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입법예고에 안경사는 물론 가족, 친지, 심지어 고객까지 빠짐없이 댓글을 올리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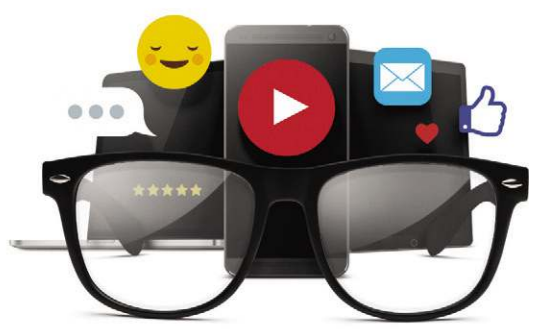
디지털 기기로 인한
초기 중년안!

우리의 눈은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에 최적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의 피로 걱정 없는 **완벽한 디지털 라이프** 실현을 위해

SYNC III for Digital Life

SYNC
III

#초기 중년안
#호야렌즈
#SYNC3로 해결



HOYA

Copyrights solely for Hoya 2019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결사반대한다

도수 돋보기의 온라인화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업권 심각하게 훼손… 온라인 업자 위한 개정안 절대 반대



▲ 서울시안경사회 전정현 홍보부회장 (중앙회 홍보이사)



▲ 지난 2월말 개최된 대한안경사협회의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안경,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결사반대한다' 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는 참석자들.

만약 현재 입법 예고 중인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국내의 안경사제도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이다.

또 안경사의 일자리도 서서히 위태롭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안경사제도가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에 휘둘려 온라인이 허용된다면 안경사의 전문성과 업권을 훼손할 것이 틀림없다.

아무리 국민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해도 모든 분야를 일률적으로 온라인화하면 안 된다. 더구나 의료기기인 안경은 자연의 빛을 선명하게 보기 위한 광학적 기기로서 결코 온라인화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안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안경사는 시력검사와 굴절검사뿐만 아니라 시험착용과 피팅상태 평가, 착용법과 부작용 설명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력보정용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눈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의 예를 자주 들고 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안경과 관련한 법률적 구조와 시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미국은 우리와 달리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을 배려해 저도수의 근용안경을 검안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1만 원 내외의 중국산 저도수 근용안경을 구입하려고 제품값의 10배에 가까운 처방료를 지불하는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배려한 조치다.

또 미국은 안과의사와 구분된 검안사에게 많은 검사비를 지불하고 안경처방전을 받으며, 미국은 지역 특성상 우리나라와 달리 안경원의 숫자도 적고 멀리 떨어져 있다. 돋보기 안경을 할인점이나 수퍼마켓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조건을 가진 곳이 미국인 것이다. 그러므로 1만여 안경원이 전국 곳곳에 분포한 우리나라에 국민편의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국내 안경원은 굴절검사 등 조제료나 처방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안경을 판매하고 있다. 결국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허용은 국민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

또한 한국 안경사는 미국 검안사와 조제사의 경계에서 검사와 판매라는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맞춤형 근용안경을 교체하려면 1년 이내에 발행된 처방전이 필요하다. 무기한으로 할인점에서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안경사 면허 취득자는 5만여 명이다. 국내에 안경광학과는 44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또 해마다 신규 안경사가 1천 5백 여명 정도 배출되고, 안경제조 유통체는 800여 곳에 7만 6백여 명(통계청, 2017년 기준)이 종사하고 있다. 만약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50여만 명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근용안경의 온라인화 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묻고 싶다.

도수가 있는 근용안경과 수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이 현실화는 결코 안 될 일로써 전체 안경사는 입법을 결사반대한다.

나도코리아 | www. nadokorea.co.kr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김서림 방지 클리너 My deskmate(내짝꿍) 출시!



▶ 등산, 낚시, 오토바이 운행 시 최적의 파트너/ 차가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가도 김서림 걱정 끝!

▶ 200회 가량 사용이 가능하며 성능이 5~6시간 지속됩니다. 단, 클리너를 절대 세척하시면 안됩니다.

▶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등에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 자가검사번호 F-A01B-C005001-A170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 053-353-9992 F 053-351-406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19 New Arrival

CARPE DIEM

β –Titanium 그리고 Duralumin이 전하는 차가운 도시갬성의 특별함.

ㄴr는 오늘도 ㅋr르페디엠을 쓴다.

-SEIZE THE DAY-

하우스 브랜드 카르페디엠 특약 안경원 전격 대모집

※브랜드 정책 및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체인 및 안경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YK OPTICS CO.,LTD

(주)와이케이옵틱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가길 36 광덕빌딩 302호
(중구 남대문로 5가 200)

Tel 02-463-3314 Fax 02-463-3315

총괄	김광영 부장 010-8127-9938
서울 · 인천 · 경기	윤영진 과장 010-6663-9948 / 박이규 대리 010-3188-6685
대전 · 대구 · 부산 · 울산 · 경상도 · 충청도	류재길 대리 010-2509-2326
광주 · 전라도	윤영진 과장 010-6663-9948

www.ykoptics.com **와이케이옵틱스 공식 B2B 쇼핑몰**에서 다양한 제품을 찾아보세요.

YouTube blog

SNS/ 인플루언서/ 연예인 마케팅 진행중

매출 키우는 '노안임상워크숍' 오는 28일 개최

숨은 노안시장 찾기 위해 외국 강사 초청… 국내 달인 안경사 성공 사례 발표

제5회 노안임상워크숍이 오는 28일 서울 코엑스의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안경사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숨은 노안시장을 찾는 노안임상워크숍의 올해 행사는 임상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워크숍은 다수의 해외강사를 초청해 외국의 노안성공 사례를 한국 시장에 접목하는 다양한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의 오전에는 '노안시장 확대 전략 및 해외 트렌드'라는 주제로 미국 검안사 Dr.Jenerou와 호주 Dr.Cahill 등이 키노트 강연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국내의 10개 주최사가 연관된 각각의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상워크숍준비위원회의 유근창 위원장은 "올해로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임상워크숍은 국내 노안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국 곳곳의 유명한 달인 안경사를 초청해 비책을 공개하고, 또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노안시장의 확대를 위한 연구와 임상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많은 안경사분들의 참여의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010-8679-7800



▲ 지난해 4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4회 노안임상워크숍의 강좌 모습.

진흥원, 유망기업 지원



▲ 지난해 8월 베트남 호치민市에서 진행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주최의 한국 안경기업 대상 수출 상담회 모습.

한국 안경산업의 육성책 본격 전개 유망기업 8개사 선정 후 최대 지원

산업통산자원부와 대구광역시,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한국 안경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글로벌 안경 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브랜드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오는 23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모집하는 진흥원은 신청기업의 요건심사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위해 브랜드 발굴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유망 브랜드 기업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진흥원의 김원구 원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안경 브랜드 기업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기업으로 육성해 침체된 한국 안경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적인 지원사업"이라며 "우리 진흥원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안경 브랜드 육성사업은 국내 유망 브랜드 안경기업을 발굴·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는 기업육성 프로그램이다.

문의 053)350-7800

스타비젼, 주원이노베이션에 투자

주원社 지분 30% 인수하며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신제품 개발도 탄력

㈜스타비젼(대표 박상진)이 지난달 29일 자사 콘택트렌즈 브랜드인 O-Lens의 주요 OEM 공급처인 ㈜주원이노베이션(대표 이해항)의 지분 30%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투자금액과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스타비젼의 관계자는 "오랫동안 양사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을 이루는 적정선에서 인수가 결정되었다"며 이번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주원의 한 관계자는 "자사는 스타비젼의 투자를 계기로 중국시장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자사에서 추진해온 원데이 렌즈의 국내 런칭은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비젼은 지난해 10월 ㈜지오메디칼에 투자하는 등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에 대해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스타비젼은 이번 투자로 주요 제조 협력업체와 공동 연구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이루게 되었다.

문의 1599-8703



▲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주원이노베이션의 사옥.

자이스 비전센터 '송도점' 그랜드 오픈





▲ 오픈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사진 좌측부터 차례대로 칼자이스비전코리아 최익준 대표, 자이스 비전센터 송도점 김대영 원장,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칼자이스코리아 김장성 CFO, 칼자이스코리아 피터 티데만 대표, 대한안경사협회 김영필 前협회장.

서울, 대구 이어 인천 3호점 개원 메디컬 전문 안경원으로 자리매김

자이스 비전센터 송도점이 지난 3일 오픈식을 갖고 개점했다. 서울 용산의 1호점과 2호점인 대구점에 이어 3호점으로 개원한 송도점은 최신의 자이스 검안장비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정밀하고 특별한 안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칼자이스비전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자이스 비전센터는 메디컬 굴절검사의 표준화된 전문 안경원으로 소비자에게 안경원의 메디컬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라며 "국내에 비전센터 안경원이 더욱 많이 개설되어 안경사가 안 보건 전문가로 더욱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이스의 시력검사 프로세스인 비전 애널리시스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더 정밀한 맞춤 안경을 제공하는 자이스 비전센터에 안경사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02)2252-1001

중국 대표 전시회 '원저우광학전' 급성장

제17회 WOF에 세계 550개 업체에 2만여 명 참관… 해외 바이어엔 객실 무료 제공

중국 원저우안경협회(Wenzhou Optical Association)와 Wenzhou Donnor Exhibition社가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원저우국제광학전(Wenzhou International Optics Fair, WOF)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원저우市의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30,000㎡(약 9,075평)의 광대한 전시장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에서 550개 이상의 업체와 2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해 WOF가 베이징국제광학전과 상하이국제광학전 등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은 국제광학전임을 과시했다. WOF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해외에서 방문하는 참관객을 위해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무국에선 해외 관람객들에게 행사 기간 동안 호텔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opticsfair.com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100개의 무료 객실을 선착순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86-577-88900603



▲ 제17회 원저우국제광학전의 전시장 내부 모습.

www.gibd.co.kr

LOOK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안경산업의 눈부신 미래를 보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안에 조성되는 대규모 안경산업단지!
안경산업 관련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아낌없는 기술지원으로 안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안경 관련 산업 입주가 가능한 **경산지식산업지구**로 오십시오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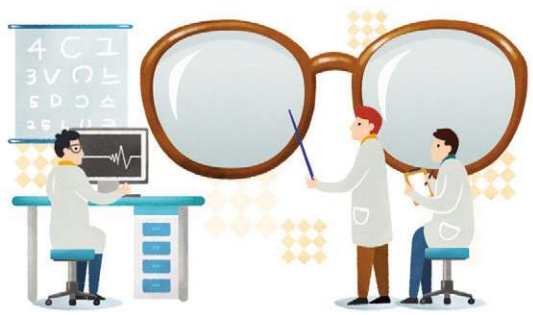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안광학관련소재 생산기업 집적활성화
- **사업기간 :** 2019~2023년(5년간)
- **규　　모 :** 총 207천㎡(약 6만3천여 평) / 센터 면적 5,280㎡
- **총사업비 :** 268억원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산시
- **사업주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재)경북테크노파크

기대효과

- 노동집약적 안광학 산업을 ICT 융합을 통해 『혁신 주도형 패션테크 산업』으로 재창조
- 전후방 관련 기업의 협력적 네트워크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 대학교 및 연구소 간의 『오픈 R&D시스템』 도입(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유치권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7(의료,정밀,광학기기)』에 해당하거나 기타 안광학관련소재 생산기업
  ※상세 해당여부는 문의 요망



시행 G-iBD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시공 대우건설 참여기관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DGFEZ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경산시 GYEONGSAN CITY / 경상북도개발공사

분양문의 **1522-1456**

社告 / 취임사

지금, 글라스스토리의 위기는 기회다



▲ 글라스스토리 대표이사 김대현

안녕하십니까, 글라스스토리 가맹점 원장님 및 협력업체 여러분 이번에 ㈜글라스스토리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대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주변에서 축하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십니다.
제가 글라스스토리의 대표이사직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글라스스토리의 이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 글라스스토리에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왔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원장님 및 협력업체 여러분.
현재 상표권 문제로 당사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표는 글라스스토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써, 글라스스토리의 헌신적인 노력에 따른 굿윌(Good-Will)이 더해져 그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상표는 글라스스토리의 명의로 출원되고 등록상표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순리에 따라, 이 상표를 당사의 명의로 바로 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점 원장님 및 협력업체 여러분의 심려도 곧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가 나올 동안 주변에서 조금 불편하고 성가시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괘념치 마십시오. 그 보상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점 원장님 및 협력업체 여러분, 글라스스토리는 변할 것입니다.
체인점 본사는 가맹점과 함께 해야 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점 사업이 잘되면 체인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가맹점이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챙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실천 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사가 가맹점에 질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라스스토리 본사는 우리 가맹점들이 다른 어떤 안경원과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충분한 이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둘째, 변해가는 시대에 발맞춘 획기적이고 차별화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싸고 좋은 물건들을 우리 가맹점들이 많이 팔 수 있게 도와 드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사는 그동안 다소 소홀히 했던 직원 인력 수급문제, 노사문제, 그리고 교육문제 등도 본사 차원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가맹점 원장님 및 협력업체 여러분 글라스스토리는 변할 것입니다. 지금이 글라스스토리가 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 변화는 글라스스토리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의 중심에 저 김대현이 섰습니다.
글라스스토리 대표이사 김대현은 지금의 현실을 낙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만 주저 없이 지금의 모든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스스토리 안경체인을 대한민국 최고의 안경 체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글라스스토리 대표이사 김대현

▲ 김대현 대표 주요이력__ • 동남보건대학 안경광학과 졸업 • 을지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석사 졸업 • 전 삼성안경원 원장 • 전 ㈜ 아이넷월드 상무이사 • 전 ㈜ 행복한안경 콘택트 대표이사 • 전 동남보건대학 안경광학과 외래교수 • 전 대한안경사협회 총무이사, 행정부회장 역임 •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정책자문위원 • 현 ㈜바바보청기 대표이사 • 현 강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겸임교수

즐거운 **안경쇼핑** **JINY's** **국민안경** 브랜드



매출하락에 대한 대안이 없으세요?
수익이 없어 매각을 검토하시나요?
지금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PB상품전략은 가맹점 수익과 가격경쟁력을 만듭니다.
그로인해 성장하는 JINY's 입니다.

원활한 공급
=
마케팅의 시작

→

고객 인지
=
마케팅의 꽃

→

가맹점 수익
=
마케팅의 열매

마케팅 잘하는 회사 JINY's 와 함께 내일을 준비하세요.

JINY's

가맹상담 | 대표 김진희 : 010-8641-5093, 본부장 김기덕 : 010-4082-3684

Eye & Health Care
NIDEK

최상의 검안 서비스를 위한 NIDEK 검안 시스템



검안세트1

- 일반 LCD와 다른 고화질 광학전용 LCD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색감으로 적/녹 검사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 같은 VA에서 시표의 글자를 랜덤하게 변환하여 암기에 의한 검안 오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 양안시, 대비감도, 야간시력, 프리즘, 입체시 검사 등 다양한 시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제품구성** : 자동포롭터 RT-5100, 검안기 ARK-1 또는 ARK-1a 유니트 OS-5010, LCD차트 SC-1600P 또는 LC-190P.



검안세트2

- 1.1m 설치공간에서 5m 시표의 효과, 포롭터의 위치에 따라 시표가 높이가 자동 조절되는 공간절약형 미러 차트입니다.
- 저반사 특수 코팅 패럴을 사용하여 외부 조명에 의한 시표의 밝기/ 농도 변화를 최소화하여 검안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 SSC-370의 나이트 모드는 밤과 같이 낮은 조도의 상황을 제공하여 야간시력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품구성**: 자동포롭터 RT-5100, 검안기 ARK-1 또는 ARK-1a 유니트 COS-2000, 미러 차트 SSC-370



콤팩트 검안시스템 TS-310

- 1㎡ 최소 공간의 검안시스템
- 하나의 LCD로 원/근용 동시 검사
- 126종류의 다양한 시표 내장
- 주/야간, 대비감도, 프리즘 시표 내장
- 매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



자동포롭터 RT-5100

- 조용하고 신속한 렌즈 디스크 응답성
- NPC, NPA, NRA, PRA 검사 기능
- 핀홀 현상을 최소화한 슬림한 디자인
- 8.4인치 터치 틸팅 LCD로 사용이 편리
- 이마감지 센서, 단안PD, 근용LED 램프



수차분석기 OPD Scan III

- 시력의 질을 좌우하는 고위 수차 분석
- 각막곡률, 굴절력 분포도 측정
- 백내장, 주/야간 동공 크기 및 거리 측정
- 교정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화면
-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와 연동

미양광학(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가길 30(우 04527)
T. 02-779-7400~2, 02-752-8721 **F.** 02-777-4730

영업이사 김창해 010-4491-4009
기술부장 정민우 010-2465-6621